즉시 배포용: 7/2/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는 27 개국 출신의 75명의 새로운 미국인을 환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공공 도서관의 랜드마크인 Stephen A. Schwarzman 건물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 시민으로 선서를 한 75명의 이민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뉴욕의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귀화 행사 기간 동안 선서를 할 또 다른 575명의 이민자도 환영했습니다.

“뉴욕은 다양성이 강점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오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미국인과 새로운 뉴욕 주민을 자랑스럽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25여개국의 대표와 함께 오늘의 행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진정한 개척자이며 모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뉴욕 주 장관 Cesar A. Perales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민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국인들이 우리의 주를 위해 한 셀 수 없니 많은 공헌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뉴욕 주 사무실은 금주에 뉴욕 주에서 미국 시민으로 선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뉴욕 주 사무실의 이사 Jorge Montalvo가 말했습니다. “7월 4일은 우리 나라의 탄생을 표시하며 우리는 우리 주가 모두를 위한 기회의 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개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 문화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기념 행사에서 새로운 미국 시민권자로 선서를 합니다.

오늘의 뉴욕시 행사에서 75명 시민 후보는 다음 27 개국 출신입니다: 알바니아 (1), 호주 (1), 방글라데시 (2), 캐나다 (1), 중국 (5), 코트디부아르 (1), 체코 (1), 도미니카 공화국 (24). 에콰도르 (1), 독일 (1), 가나 (6), 기니 (1), 아이티 (1), 인도 (3), 이라크 (1), 이스라엘 (2), 이탈리아 (1), 자메이카 (8) 케냐 (1), 몬트세라트 (1), 파키스탄 (1), 세네갈 (3),

세인트키츠네비스 (2), 잠비아 (1), 토고 (2), 영국 (2), 예멘 (1).

독립 기념일 주간에 추가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7월 4일 뉴욕, Albany, Nelson A. Rockefeller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 2015년 7월 4일 뉴욕 Mumford, Genesee 카운티 & 빌리지 박물관
- 2015년 7월 4일 뉴욕, Stillwater, Saratoga 국립 역사 공원

이 행사와 축하는 이민자들이 완전히 뉴욕 시민 및 경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노력에 구축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구현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 사회 및 뉴욕의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된 경우 이전 행정부는 연방 보안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양식 및 지침에 대한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기관에 이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 26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가정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ONA를 설립하였고, ONA를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최초의 주단위 이민자 사무소로 만드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